

##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2월 6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심의위원장에 김성중 위원(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이, 부위원장은 최수호 위원(전 YTN 해설위원실장)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90일 간 설치·운영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불공정 기사를 심의하고 후보자 시정요구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경인지역 언론사 대표 간담회 개최

이석형 위원장은 지난 2월 7일 경인지역 언론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김세윤 중재부장(수원지법 수석 부장판사)을 비롯한 경기중재위원과 신항철 경기일보 회장, 한창원 기호일보 대표이사,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 김학균 OBS경인TV 대표이사,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이사, 김대훈 경기신문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경인지역 주요 언론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언론조정제도 운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2023년 제1차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국 로스쿨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로스쿨생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생동감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해오던 교육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토론회 형식의 참여형 실습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로스쿨생 대상 예비법조인 연수는 매년 두 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제2차 연수는 6월 중 실무수습생 모집·선발을 거쳐 8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2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지난해 업무 성과를 담은 <2022년도 연간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3,175건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1,239건의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습니다. 2022년도 시정 권고 결정 수용률은 67.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총 85건의 제재결정을 내려 역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중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는 총 68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